

우범(牛凡) 이해창(李海暢)의 언론학과 언론사 연구에 관한 고찰*

김영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책임연구원)

이 글의 목적은 한국 언론학의 초창기 역사를 만들어간 언론학 1세대의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우범 이해창의 언론학과 언론사 연구를 고찰하고, 한국 언론학 연구사에서 이해창의 연구사적 의미를 검토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이해창의 연구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해창은 1947년 저널리즘 전문 연구 잡지 『신문평론』을 발행하여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둘째, 그는 1960년 이화여자대학교 신문학과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한국에서 언론학 교육의 초기 제도에 기여했다. 셋째, 이해창은 자신의 학문적 배경인 독일 공시학(푸블리씨스틱학)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연구했다. 넷째, 이론과 함께 역사를 중시하는 일본의 신문학과 독일 공시학의 학문적 전통에 영향 받아 한국언론사를 연구하여 여러 주제에 대해 선구적인 업적을 내었다. 다섯째, 한국 언론학계 최초로 한국 시사만화의 역사를 개관했다.

key words : 이해창, 한국 언론학 1세대, 한국 언론학 연구사, 독일 공시학, 일본 신문학, 언론학 연구, 한국 언론사 연구

* 이 연구는 2009년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의 연구지원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세 분의 조언이 글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논문은 2009년 한국언론학회 50주년 기념행사 및 봄철 정기학술대회의 기획세션 “한국 언론학 1세대에 대한 성찰”에서 발표한 글을 보완한 것입니다.

** properk@hanmail.net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언론학이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체계적으로 교육되기 시작한 것은 광복 이후 1947년 조선신문학원(1952년 서울신문학원으로 변경)의 설립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신문학원은 정규 교육과정이지 아니었으므로, 언론학 제도화의 계기는 1954년 홍익대학에 신문학과가 설립되어 정규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1959년 언론학 연구자들의 연구단체인 한국신문학회(한국언론학회의 처음 명칭) 창립 당시 회장(곽복산), 부회장(임근수), 대학 측 이사(이해창, 최준)를 맡아 활동했다(신문학보, 1960, 제1호, 72쪽).

이들의 학문적 경향을 살펴보면 곽복산은 신문학 이론에서 시작하여 언론학으로 확대하고 언론학의 학문 연구대상과 영역을 체계화시킨 초기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곽복산, 1955, 1971). 임근수, 이해창, 최준 등 세 학자는 연구 관점과 대상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언론의 역사를 연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언론사를 연구하면서 임근수의 경우 언론사업과 신문구조, 신문학사(新聞學史)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고(임근수, 1984), 이해창은 독일 공시학을 번역, 소개하고 신문학 개설서를 냈으며, 최준은 『방송론』을 저술하였다(최준, 1965). 현재보다 연구 분야와 영역이 미분화되었던 언론학 연구의 초창기에 이 세 학자 모두 신문사(新聞史) 나아가 언론사(言論史)를 연구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언론학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던 시기 한국 언론학의 연구를 이끈 인물들의 학문적 관심에서 언론사 연구가 매우 중시된 연구 분야였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차배근은 한국 언론학의 1세대인 우당(牛堂) 곽복산, 희관(睇觀) 임근수, 우범(牛凡) 이해창, 야농(野農) 최준 교수를 한국 언론학의 4비조(鼻祖)로 꼽을 수 있다고 하였다(차배근, 1990, 4쪽). 이들을 4비조로 평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언론학이 학문으로 제도화되던 초기에 언론학 연구와 교육을 주도한 선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우범 이해창의 학문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한편 양승목은 한국 언론학이 1960~1970년대에 ‘전통적 신문학’에서 ‘사회과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로 변화에 갔다고 하면서 그러한 변화의 핵심에 김규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양승목, 2005, 3쪽). 이 시기는 이해창이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전개하던 기간으로, 그의 경우 독일공시학(푸블리시스트릭학)을 바탕으로 신문학과 신문사를 연구했다. 그의 연구는 미국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아니었는데, 그렇다면 전통적 신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적 입장에서 어떤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연구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한국 언론학 연구에서 인물사 연구는 매우 드물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언론학과 언론현상의 전개과정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유용한 접근방법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 우범 이해창의 신문학과 신문사연구가 한국 언론학에서 갖는 역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이해창의 생애와 학문연구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발행한 저널리즘 전문 연구잡지 『신문평론』의 성격을 분석하여 그가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잡지를 간행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이어 언론학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해창의 신문학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그의 학문적 입장과 독일공시학 연구 및 신문학 개설서의 연구 대상과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언론사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의 신문사연구의 연구관점과 시각, 대상 및 방법을 고찰하고, 그의 언론사 주요 연구 업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학 연구사의 관점에서 이해창이 우리나라 초기 언론학 성립에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평가할 것이다.

2. 이해창의 생애와 학문¹⁾

1) 일본 조치대 신문학과(上智大 新聞學科) 수학(修學)과 매일신보 체육부 기자

이해창은 1916년 3월 24일 경성에서 부친 이석중(李碩鍾)씨와 모친 밀양 박씨의 3남으로 출생했다. 1929년 3월 매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7년 2월 경기도가 시행하는 소학교 급보통학교(小學校及普通學校) 교원 검정시험에 합격했다. 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경기도 양주군 유양(維楊)공립보통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 일본에 갔다. 일본에서 그는 지바현(千葉縣)에서 시행하는 국민학교 체조과 전공의 정교원 검정시험에 합격했다. 이어 1939년 4월 일본의 조치대학(上智大學) 전문부(專門部) 신문학과(新聞學科)에 입학하여 수학한 후 1941년 12월 30일 졸업했다.²⁾ 재학 중에는 그 대학에 권투부를 창설해 스스로 주장이 되어 활약한 스포츠맨이었다.

졸업 직후인 1942년 1월 『조선신문(朝鮮新聞)』 기자가 되었다. 『조선신문』은 일본인이 인천에서 창간해 발행하다가 1919년 2월 서울로 이전해 발행하던 일본어 신문으로(박용규, 2006, 42쪽), 경성에서 발행하는 일본어 신문으로는 발행부수가 『경성일보(京城日報)』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신문이었다(『朝鮮出版警察概要』, 1941). 그러나 이해창이 조선신문사에 들어간 지 두 달 만에 이 신문은 조선총독부의 신문통폐합 정책으로 폐간되었다(박용규, 2001, 214~217쪽). 『조선신문』이 폐간되면서 이해창은 1942년 3월 총독부 국문기관지 『매일신보

1) 이 부분은 이해창교수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편(1976). 『저널리즘논고』, 14~15쪽의 “우범 이해창 교수 약력”을 기본으로 하여 보완하였다.

2) 당시 일본의 대학 학제제도에서 학부과정은 대부분 3년 과정이었다. 이해창은 1942년 3월 졸업예정이었는데, 태평양전쟁으로 1941년 12월 30일 수업 종료와 함께 졸업식을 앞당겼다고 한다.

(每日新報)』체육부로 옮겨 근무했다.³⁾ 『매일신보』는 1939년경부터 조선인이 경영하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발행부수를 앞서기 시작했는데, 특히 1940년 두 신문이 폐간된 이후 총독부 일본어 기관지 『경성일보』와 함께 발행부수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해 1944년 발행부수가 388,337부였다(宮田節子/이영남, 1985/1997, 4쪽). 이와 같이 이해창이 근무하던 당시 『매일신보』는 총독부기관지였으나, 이를 읽는 조선인 독자가 크게 늘어난 때였다.

그 무렵 『매일신보』는 태평양전쟁 말기 전시체제 아래 식민지 조선에 총동원하던 총독부의 충실한 대변자였다. 당시 조선인 경영 신문이 존재하지 않았고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랜 기간은 아니라도 그런 신문의 기자가 되어 활동했다는 것은, 당시 『매일신보』 조선인 기자들이 들었던 “매신(每新)에 매신(賣身)했다”(조용만, 1977, 88쪽)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해창은 조선인 기자로서의 의식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광복 직전에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못마땅하게 여겨 가족과 함께 시골로 가 잠시 교편생활을 했다고 한다(안광식, 1977, 135쪽).

2) 한성일보 체육부장, 신문평론 발행과 서울대 문리대에서의 신문화 강의

이해창은 광복 이후 1946년 3월 『한성일보(漢城日報)』의 체육부장으로 기자활동을 다시 시작했다.⁴⁾ 『한성일보』는 1946년 2월 26일 창간한 신문으로 안재홍이 사장, 주필이 이선근, 편집국장이 양재하였다.⁵⁾ 『한성일보』는 사장 안재홍이 미군정의 민정장관으로 있어 군정당국에 호의적이어서 미군정이 우익으로 분류한 신문으로, 1946년 10월 30일 현재 발행부수가 35,000부 정도였다(김영희, 2009, 160쪽).⁶⁾ 그는 신문사에 근무하면서 광복산이 주도해 1946년 12월 25일 설립한 신문과학연구소의 총무국 간사로 활동했다(정진석, 1995, 19~34쪽). 광복산은 이해창의 조치대학 신문학과 선배이면서 『매일신보』에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었다. 신문과학연구소는 1946년 1월 초순 광복산을 비롯한 11명이 저널리즘 연구와 언론인 양성을 목적으로 창립한 조선신문연구소가 실질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하다가 이름을 변경하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었다. 신문과학연구소는 연희대학 총장 백낙준을 소장으로 하여 김동성(합동통신 회장), 설의식(동아일보 주간) 등 언론계 중진과 서울대 장이욱 총장, 고려대 현상운 총장 등이 이사로 참여해 권위와 학술적 수준을 갖추었다. 여기에 이해창이 실무를 담당한 총무국 간사로 참여한 것이다.

3) 약력에는 『每日新報』에 4년 근무했다고 하는데, 1943년 이후의 『매일신보』 편집국 직원 명단에는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정진석, 2005, 360~361쪽).

4) 2009년 6월 5일, 이 글 발표 후 김동철 교수가 사회부장과 겸임한 것으로 증언했다. 그러나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5) 『한성일보』는 1945년 10월 5일 창간된 『신조선보(新朝鮮報)』가 1946년 2월 지령 101호로 종간하고 제호를 변경해 창간되었다(정진석, 2003, 244쪽).

6) 안덕근은 자본, 발행부수, 시설, 인적 진용 등을 기준으로 1946년 현재 『한성일보』를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인민보』, 『중앙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7대 신문의 하나로 설명했다(안덕근, 1946, 642~646쪽), 그러나 『한성일보』는 그 후 발행부수가 1947년 7월 23,500부, 1948년 8월 26,500부로 감소했다.

신문과학연구소는 신문고등학교의 교육사업과 조사연구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실제 실현된 것 같지는 않다고 한다(정진석, 1995, 22쪽). 하지만 광복 이후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했던 당시 사회와 언론계 사정을 생각하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는 연구소가 설립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신문과학연구소는 1947년 2월 18일에 군정청 학무국으로부터 조선신문학원의 설립을 인가받았다. 조선신문학원은 1947년 3월초 6개월 과정의 전수과를 처음 모집했다. 제1기생으로 60여 명을 선발하여 4월 5일 개원식이 열리고, 7일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다. 조선신문학원의 강사진은 신문사의 편집국장장과 주필 및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당시 갓 서른을 넘긴 젊은 신문사 체육부장이며 신문과학연구소 총무국 간사였던 이해창은 조선신문학원에서 강의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1947년 4월 저널리즘 전문잡지 『신문평론(新聞評論)』을 창간했다. 『신문평론』은 “저-나리즘의 종합적 연구”를 표방하고 6호까지 발행되었다.

이렇게 기자생활과 『신문평론』 발행으로 동분서주하던 이해창은 『한성일보』가 1949년 2월 4일부터 6개월이 넘게 장기 휴간하면서 경영의 어려움을 겪자⁷⁾ 1949년 9월 서울고등학교의 독일어 교사가 되었다. 그는 독일어 교사로 8년 근무하면서, 1953년 4월부터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신문원론과 현대신문론 등을 2년간 강의했다(이해창, 1978, 19쪽).⁸⁾ 이 강좌는 1949년 4월 처음 개설되어 광복산이 강의했는데,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서울 복귀 이후 계속되어 2년간 강의했다고 한다(광복산, 1971, 42쪽). 그 후 그의 대학후배인 이해창이 맡아 강의한 것이다. 문리대 문학부 상급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과목이었다(박유봉, 1977, 211쪽). 그에게 신문연구를 권한 사람은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 이상백 교수와 정치학과 이선근 교수였다. 한국전쟁으로 부산 피난 시절 두 사람이 문리대에 신문학 강좌를 두었으니 그에게 강의를 담당해 달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⁹⁾ 서울대 문리대에서의 2년간의 신문학 강의는 그에게 신문학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는 데 큰 자극이 되었다(안광식, 1977, 134쪽).¹⁰⁾

7) 『한성일보』는 당시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던 상무 김종량이 직접 운영하는 『세계일보』의 필화로 구축되면서 휴간했다가 9월 1일 속간되었다(박용규, 2004, 225~226쪽).

8) 강좌명으로 보아 그의 강의 내용은 오노 히데오(小野秀雄)의 『新聞原論』(1947)과 『現代新聞論』(1934)을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4절 참조). 오노의 『新聞原論』은 독일 푸블리찌스틱의 학문적 경향과 유사한 신문이론 개설서이고, 『現代新聞論』은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이탈리아, 독일 및 일본의 신문역사와 현황을 설명한 비교신문론이다.

9) 이상백은 1947년 서울대 교수로 취임하는 한편 1946년 조선체육회 이사장을 거쳐 1951년 대한체육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이선근은 『한성일보』 창간 당시 주필이었고, 1947년 서울대 정치학과 주임교수가 되었으며, 1950년 국방부 정훈국장으로서 활동하다 1952년 서울대로 복직했다(<http://people.aks.ac.kr> 참조). 이해창은 『한성일보』 체육부장을 지내며 조선체육회 개인평의원의 요직에 있어(이길용, 1948, 55쪽) 두 사람과 인연이 있었다.

10) 이해창이 2년 강의한 이후 서울대 문리과대학의 신문학 강좌는 천관우, 박권상, 김규환 순으로 담당했다(임근수, 1973, 14쪽).

3) 독일 푸블리찌스틱과학 공부와 이화여대 신문학과 설립 교수로 참여

이해창은 나이 41세이던 1956년 11월 “하계만 교수의 푸블리지스틱과 영화이론의 강의”를 듣고(이해창, 1981. 156쪽) “부족한 신문이론을 보충하자는 의도”(안광식, 1977, 134쪽)로 독일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서울대에서의 2년간의 신문학 강의가 그의 연구인생에 큰 계기가 된 것이다. 그는 1958년 5월까지 독일 최대의 신문연구소인 뮌스터(Münster)대학 푸블리찌스틱연구소(Institut für Publizistik)에서 연구소장 하계만(Walter Hagemann)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했다.

귀국하기도 전인 1958년 5월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조교수로 임명되었고, 귀국 후 교양학부에서 독일어를 강의했다. 이화여대에서 새로 신문학과를 설치할 계획으로 미리 그를 영입한 것이었다. 이화여대 교수가 된 그는 1959년 6월 30일 한국신문학회가 창립되었을 때, 최준(중앙대 신문학과 교수), 오주환(고려대 신문학과 강사)과 함께 초대 대학 측 이사로 참여했다(『신문학보』, 제1호, 1960, 72쪽). 이해창은 1969년과 1970년에도 한국신문학회 이사로 소개되었으나(『신문학보』 2호, 1969; 3호, 1970 참조), 1960년대에 한국신문학회 활동이 오랜 기간 침체되면서 학회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1954년 홍익대학, 1957년 중앙대학교 법정대학에 이어 1960년 4월 1일 이화여대 문리대학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신문학과가 설립되었다. 홍익대학은 1962년 폐과되어 그 재학생을 중앙대학교가 인계받아 졸업시켰다. 이에 따라 신문학과에서 명칭을 변경해 신문방송학과를 거쳐 현재의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는 중앙대의 신문학과(이후 신문방송학과)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두 번째로 역사가 긴 학부이다. 초대 학과장서리에 영어영문학과 김세영 교수가 겸직 발령되고, 이해창이 신문학과 전임교수가 되었다. 이어 1961년 9월 김세영 교수가 영어영문학과로 복귀하고, 제2대 학과장에 이해창이 취임하였다(김동철, 1990, 1-5 ~ 1-6쪽). 이후 이해창은 1981년 8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이화여대 신문학과(1969년 신문방송학과로 명칭 변경) 교수로서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였다. 신문학 전공교수로서 그는 학생들의 실무능력 함양에도 관심을 갖고, 1962년 12월 신문학과 학생들의 신문 실습지로 『주니어 저널리스트』라는 제호의 타블로이드 크기의 부정기 신문을 창간해 신문 제작 실습을 지도했다(김동철, 1990, 1-7쪽).

한편 1957년 독일유학 시절 그는 한국 언론계도 국제적인 신문단체에 관련을 맺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국제신문인협회(IPI) 본부로 찾아가 한국 대표로 본인의 가입을 신청한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는 한국에 언론자유가 없고, 위원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그 후 1960년 10월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의 추천으로 IPI에 가입하여 1968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IPI 총회와 1974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총회에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4) 이해창의 주요 연구 업적

이해창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꾸준히 연구 성과를 내었고, 1981년 8월 이화여대를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한동안 경희대와 연세대 등에서 강의하면서 연구를 계속했다. 그후 그는 1987년 7월 1일 72세로 별세했다. 언론학 관련 저서를 중심으로 그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이해창의 언론학 관련 저서

	발행 상황	저서 성격
1	『독일신문학연구(獨逸新聞學研究)』(1962, 초판, 251쪽), 1973년 개정증보판(357쪽), 1979년 개정3판(377쪽)	번역서
2	『한국신문사연구(韓國新聞史研究)』(1971, 361쪽), 1983년 개정증보판(451쪽)	연구서
3	『한국풍자만화의 사상』(1976, 50쪽) →『한국사사만화사(韓國時事漫畫史)』(1982, 269쪽)로 보완 간행	연구서
4	『신문학개론 강의 상(新聞學概論講義 上)』(1978, 130쪽)(1978년 중간)	개설서
5	『스포츠와 저널리즘』(1981, 230쪽)	저널리즘 관련수필집

3. 이해창의 『新聞評論』 발행

1) 신문평론 창간과 발행 상황

이해창은 1947년 4월 17일 저널리즘 전문 연구를 발행목적으로 한 잡지 『신문평론』을 창간했다. 모두 6호가 발행된 신문평론의 발행 상황은 <표 2>와 같다. 일제 강점기 신문 전문잡지로 발행된 『칠필』(1931~1932)이 4호가 발행되고, 『호외』(1933. 12)가 1호, 『저널리즘』(1935. 6)이 1호 발행되었던 것과 비교할 때, 『신문평론』은 당시로서는 우리나라 저널리즘 전문지 가운데 가장 오래 발행된 잡지였다. 미군정기는 1946년 후반 이후 인쇄용지 부족으로 주요 신문을 제외하면 신문도 제대로 발행하지 못했고, 잡지의 경우 창간호가 종간호가 된 경우도 많던 시절이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해창은 『한성일보』 체육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신문평론』을 6호까지 발행한 것이다.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창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문평론』의 발행인·편집인·인쇄인 등 1인 10역으로 편집실도, 편집기자도 없이 원고청탁에서 수집, 인쇄, 보급과 대금회수까지 혼자 거의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다(조용만, 1976, 4쪽).

『신문평론』주간으로 집필한 창간사에서 이해창은 『신문평론』이 “문화의 최첨단을 것

〈표 2〉 신문평론 발행 상황

호수	발행일	분량	표지에 내건 제목
제1호	1947년 04월 17일	54쪽	조선신문소사
제2호	1947년 07월 15일	80쪽	저-나리즘과 문화, 정치와 신문
제3호	1847년 10월 14일	76쪽	외교와저-날리즘, 독일신문계 현황, 소련의 극동정책(시카고트리분 서울특파원 윌타 · 시몬스)
제4호	1948년 02월 27일	66쪽	UN사무총장 트리그브라-論, 중국언론특집
제5호	1948년 12월 15일	38쪽	창간 1주년 기념호
제6호 ¹⁾	1949년	40여 쪽	혁신호, 신문의 사회학적 연구, 저-날리즘과 계몽, 저-날리즘과 여성, 신문과 뉴스

출처: 『신문평론』 영인본(1992); 정진석(2008), 141 ~ 142쪽.

고있는 저-나리즘의 종합적 연구의 표현기관”으로 탄생했다면서, 신문인과 잡지인 그리고 일반 지식층이 저널리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신문평론』을 창간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거운 짐과 커다란 책임을 지니고 이 나라 저-나리즘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미약하나마 한 개의 추진력이 되고자 감히 신출발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저-나리즘에 있어서 해결지어야 할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으니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비약과 성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조선 저-나리즘의 연구는 저-나리스트와 아울러 일반 지식층의 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적극적인 해결의 방도를 기도하는 데 있다. 사도(斯道)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 이때야말로 깊은 반성에 가편(加鞭)할 시기가 아닐까! ... 이에 본지(本誌)는 불충분한 것이나마 사도를 연마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고 기여되는 바 있으면 본지의 사명은 달성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는다.

『신문평론』은 <표 2>에서 보듯 3호까지 3개월 간격으로 어느 정도 순조롭게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호는 발행 간격이 4개월로 늘었는데 이때부터 저널리즘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잡지 발행에 어려움을 느낀 것 같다. 4호 편집후기에 “앞으로 저-날리즘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문화잡지로서의 용모를 갖추고 출발”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나 발행된 제5호는 그 내용에서 저널리즘 전문잡지 성격을 유지했지만 분량은 많이 줄어 38쪽으로 발행되었고, 6호 역시 40여 쪽이었다. 저널리즘 전문잡지 발행에 한계를 느끼고 종합 문화잡지로 전환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하여 결국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11) 제6호는 정진석 교수가 소장한 표지 내용에 의함. 『신문평론』 제6호의 표지내용을 알려주신 정 교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신문평론 기사 주제와 필자의 성격

이해창이 저널리즘의 종합 연구 표현기관으로 발행한 『신문평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다루었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신문평론』 제1호에서 5호까지 다루어진 주요 주제와 필진을 조사했다. 먼저 『신문평론』에 수록된 내용의 주요 주제는 <표 3>과 같았다. <표 3>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저널리즘 전문잡지로서의 성격에 적절한 주제들이 게재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제1선 기자에게 보내는 말”(1호), “신문기자와 고발의 정신”(이갑섭, 2호), “신문의 사명과 기자도의 대경(大經)”(설의식, 3호) 등 기자의 역할과 자세를 다룬 글이 모두 11편으로 가장 많았다. “당과 신문의 운명”(최준, 2호), “건설적 언론을 발전시키자”(이종모, 4호) 등 신문의 역할과 과제를 다룬 9편의 글도 같은 맥락에서 수록된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혼란했던 미군정기 언론계 상황이 반영된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신문계 현황”(김동성, 1호), “독일 신문계의 현황”(컬트·에헐러스, 3호), “중국의 언론특집”(4호) 등 외국 언론의 현황과 성격을 다룬 글도 10편으로 많이 게재되었다. 관련 정보가 부족했을 당시 세계 주요국가의 언론현황을 소개해 독자들이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저-나리즘과 문화”(2호 특집), “외교와 써-널리즘”(장철수, 3호), “스포츠와 써-널리즘”(이정순, 4호) 등 저널리즘과 다른 분야와의 관계를 검토한 글이 7편 게재되었다. 이와 함께 “신문편집의 기술론”(우승규, 2호), “신문조판기교론”(우승규, 4호) 등 신문편집 문제도 관심을 보인 주제였다. 이외에 오보(誤報)(2편), 속기(速記)(2편), 광고, 통신사, 선전영화 등을 주제로 한 글이 게재되었다.

창간사 이외에 『신문평론』에 이해창 자신이 집필한 것으로 생각되는 주요 기사는 다음과 같았다.¹²⁾

제1호 신문기자 10誡 / 신문용어 해설

제2호 신문연구와 신문학설(편집부) / 신문용어 해설

〈표 3〉 신문평론이 다룬 주요 주제

주제	세부 주제	기사 수
기자의 역할, 자세	신문기자 10계, 신문기자와 고발의 정신 등	11
외국신문 현황	중국(5), 미국(3), 독일(1), 소련(1)	10
신문의 역할, 과제	신문계시감, 언론계의 참의와 왜곡 등	9
저널리즘과 사회	저-나리즘과 문화(4), 외교와 써-널리즘 등	7
신문역사	조선신문소사	5
신문편집	신문편집의 기술론, 신문조판기교론 등	4

12) 권두언, 기고자 이름이 없는 “신문기자 10계”, 신문용어해설 등과 편집부로 표기된 것은 당시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등을 혼자 맡아 『신문평론』을 발행한 이해창이 집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4호 신문자유와 방중(권두언)

제5호 퍼쏘넬 · 찌날리즘의 시비(권두언)

이 글들의 주제는 이해창이 당시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지 말해준다. 먼저 그는 “신문기자 10계(誡)”, “신문자유와 방중”, “퍼쏘넬 · 찌날리즘의 시비”를 통해 언론(인)의 자유 및 윤리와 책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주제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문평론』에서 가장 많이 다룬 내용이기도 했다. 좌우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져 사회전체가 혼란스러웠던 미군정기 시절 신문의 역할과 언론인의 자세를 경계하는 데 이해창이 특히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그는 이 무렵에도 신문에 대한 학술적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신문연구와 신문학설”에서 독일, 미국, 일본의 신문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에밀 도비파트(Emil Dovifat), 스튜어트 로버트슨(Steward Robertson), 오노 히데오(小野秀雄) 등 외국 신문학자의 연구를 소개한 것이다. 이외에 신문용어 해설 및 정기간행물법(3호)과 신문법전(3호)을 소개했다. 그가 언론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신문평론』 제1호에서 5호까지 수록된 글의 필자는 모두 39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외국인 필자가 8명이었다.¹³⁾ 이들 가운데 2회 이상 집필한 사람은 <표 4>와 같았다.

<표 4>와 같이 『신문평론』의 주요 기고자는 미군정기 우익적 성향의 신문과 통신사의 간부급 언론인들이었다. 이 가운데 『신문평론』 5호까지 매호 글이 연재된 필자는 “조선신문소사”를 집필한 안재홍이었다.¹⁴⁾ 이 글은 『조선일보』에 1935년 7월 6일부터 시작해서 19회 동안 연재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의 신문역사 연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연구 성과로 평가되는 글인데, 『신문평론』에 5회로 나누어 다시 수록한 것이다. 당시 안재홍은 이해창이 근무하는 『한성일보』의 사장이기도 했다.

필자 가운데 김동성(합동통신 사장), 설의식, 배성룡(세계일보 주필), 이갑섭(조선일보 주필), 이정순(자유신문 편집국장), 오기영(서울전기총무부장, 사회평론가), 함대훈 등은 이해창이 총무국 간사로 활동한 신문과학연구소가 1947년 설립한 조선신문학원의 초대 강사진이었다(정진석, 1995, 31쪽). 또한 설의식, 이종모, 이갑섭, 오기영, 양재하 등의 필자는 중도적 성향의 언론인 단체였던 조선언론협회의 임원이었다. 조선언론협회는 1948년 6월 24일

<표 4> 신문평론의 주요 필자

집필회수	이름(당시 직책)
5회	안재홍(민정장관, 한성일보 사장)
3회	송지영(한성일보 편집부장, 중국어판 한성일보 주필 겸임)
2회	강영수(한성일보 정경부장), 설의식(새한민보 사장), 우승규(경향신문 편집국장), 이종모(조선통신 편집국장), 정광현(합동통신 사회부장), 함대훈(한성일보 편집국장, 미군정청 공보국장)

13) 설문조사에 대한 의견 등의 단문과 시, 수필, 외국소설 필자는 제외함.

14) 5호로 “조선신문소사” 연재가 끝나면서 6호에 역시 안재홍이 『조선일보』 1935년 7월 27일~28일자에 기고한 “신문인 윤락기(淪落記)” 수록을 안내했다.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는데, 1947년 8월 조직된 우익 성향의 언론단체 조선신문기자협회가 보수우익의 이익을 위한 정치조직의 성격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분단체제가 고착되어 가는 현실에서 남북통일과 언론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언론인단체로 평가된다(박용규, 2007, 154~158쪽). 이들 이외에도 『신문평론』의 기고자들은 대부분 당시 언론계의 대표적인 중진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신문평론』의 필진은 당시 우리나라 언론분야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해창의 이념적 성향 역시 『신문평론』의 주요 필자와 유사한 중도우익적 성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이해창이 창간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6호까지 발행한 『신문평론』은 저널리즘의 종합적 연구라는 발행목표에 충실했던 학술지 겸 잡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우리나라 저널리즘 현실에서 요청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당대 최고의 필진에 의해 깊이 있게 다루어 저널리즘에 대한 언론인과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해창의 언론학 연구

1) 학문적 배경과 연구대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해창은 일제 강점기인 1941년 12월 일본 조치대학 전문부 신문학과를 졸업했다. 조치대학 신문학과는 도쿄(東京)대학에서 신문학을 가르치던 오노 히데오가 조치대학의 의뢰를 받아 설립한 일본 최초의 신문학과였다(小野秀雄, 1971). 오노는 일본 신문학의 선구적인 학자로 이해창이 입학하기 전에 이미 『일본신문발달사(日本新聞發達史)』(1922), 『도해신문발생사(圖解新聞發生史)』(1932), 『현대신문론(現代新聞論)』(1934) 등을 저술했고, 그 후에도 신문이론과 신문사분야에 많은 저서를 남겼다.¹⁵⁾ 그런데 오노는 독일에서 칼 데스터(Karl d'Ester), 에밀 도피파트 등 저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며 독일언론학을 연구한 바 있었다(이해창, 1981, 70~71쪽; 小野秀雄, 1971). 이러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가 설립한 학과에서 신문학을 배운 이해창은 1956년 11월부터 1958년 5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독일 뮌스터대학 퍼블리시스트릭연구소에서 공부했다. 당시 연구소장은 하계만 교수였는데, 그는 퍼블리시스트릭(Publizistik) 이론 창시와 영화이론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자였다. 이해창은 퍼블리시스트릭 이론을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영화현상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 성과를 낸 저명한 학자로부터 직접 최신의 독일신문학을 배운 것이다.

15) 이해창이 조치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오노의 주요 저작으로 『新聞原論』(1947), 『日本新聞史』(1948), 『新聞の歴史: 瓦版から輪轉機時代まで』(1955), 『新聞研究 五十年』(1971) 등이 있다. 『新聞原論』은 18판 이상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이렇게 볼 때 이해창의 연구는 바로 이러한 독일신문학을 바탕으로 한 오노 히데오 등 일본의 신문학과 그가 직접 독일에 가서 공부한 독일의 공시학이 학문적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창은 ‘저널리즘’, ‘언론’, ‘매스 커뮤니케이션’ 또는 ‘언론사(言論史)’라는 표현은 사용했지만 언론학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다. 그는 오늘날 언론학의 연구대상을 연구하면서 신문학(新聞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1962년 『독일신문학연구』 초판 머리말에서 그는 “바야흐로 한국에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 영화 등 공시현상의 현저한 발전은 新聞學研究의 의욕을 촉진시키고 있으며”라고 하여, 미디어 전반에 대한 연구를 신문학 연구로 불렀다. 그 후 그는 신문(新聞)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이해창, 1978, 5쪽).

新聞과 新聞紙가 동의어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은 다만 신문의 전달형태인 신문지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어 전형적인 新聞形態로 인정을 받아 왔기 때문에 신문지가 新聞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고 요지음에 출현한 전파 매개체나 영상매개체를 동일한 신문형태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신문이라는 말은 인쇄된 신문지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公示의 作用目的을 갖은 것으로서 「特定치 않은 다수인에게 현실적인 의식내용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과정의 전 체계」라는 광의의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해창은 신문을 광의로 사용해서 신문학(新聞學)을 「특정치 않은 다수인에게 현실적인 의식내용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과정의 전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해창 자신도 “신문이론(新聞理論)으로서의 표시와 전달”이라는 글의 한 절의 제목을 “신문학에서 푸블리찌스틱 과학으로”라고 하여 독일의 신문학(Zeitungswissenschaft)이 푸블리찌스틱 과학(Publizistiken Wissenschaft)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면서 푸블리찌스틱이 광의의 신문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그가 사용한 신문학(新聞學)의 성격은 어떤 경우에는 협의의 신문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푸블리찌스틱 과학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가 말하는 신문학은 언론학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푸블리찌스틱학은 전통적인 신문학에서 연구영역을 신문,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공시현상 전반으로 확대한 공시학(公示學)이기 때문이다(이해창, 1978).

2) 이해창의 언론학 연구 내용

이해창이 독일유학을 마치고 대학에 자리 잡은 후 먼저 시작한 연구 활동은 독일 공시학의 소개였다. 1962년 『독일신문학 연구』를 번역해 간행한 것이다. 이 초판의 주제는 “과학으로서의 푸블리찌스틱”(W. 하게만), “저널리즘의 기원”(뉘하), “의견 · 여론 · 정치적 의사형

성”(도피파트), “영화의 목적”(하게만) 등 신문이론과 푸블리찌스틱학의 소개 그리고 신문의 역사와 영화이론을 다룬 논문들로 구성되었다. 그의 학문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영화이론에 대한 그의 관심도 흥미롭다. 하게만의 연구관심 영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신문학 연구』는 1973년 개정증보판을 거쳐, 1979년 개정3판을 내었다. 개정증보판은 초판의 일부를 빼고, 자신의 글과 새로운 내용을 추가 번역해 실었다. 개정3판은 개정증보판 내용에서 부록을 빼고, “독일 일간신문의 역사”와 “오스트리아 신문사”를 추가했다. 개정3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두 21개의 글 가운데 첫째, 푸블리찌스틱 과학의 이론을 소개한 논문이 “푸블리찌스틱 과학연구의 개념과 방법”(하게만), “푸블리찌스틱 과학의 관찰되어진 디스찌플린의 발전”(H. 프라케) 등 4편이 실려 있다. 이어 독일의 영화과학 이론이 “독일 영화 과학의 현황”(E. 펠트만), “영화표시의 형태와 공시적(公示的) 작용”(T. 퀴어스테나오) 등 4편 소개되었다. 세계 신문의 역사와 현황을 다룬 논문은 “어디서 세계최초의 신문이 발생하였는가”(K. 테스트), “소련신문사”(윈스터대 신문연구소) 등 6편, 저널리즘 이론이 “저널리즘의 기원”(K. 뷔허), “의견, 여론, 정치적 의견형성”(E. 도피파트) 등 3편, “신문 · 라디오 · 텔레비전”(K. 바겐푸어) 등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관한 글이 2편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독일신문학 연구』는 독일에서 생성, 발전한 푸블리찌스틱 과학의 학문적 특성과 그 주요 개념을 다룬 논문들을 번역, 소개했다. 또한 이 학문을 바탕으로 수행된 주요 연구 성과인 영화연구와 “스위스신문 개관”이나 “아프리카신문사” 등 세계 신문의 역사와 현황을 다룬 논문들을 소개했는데, 이런 주제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에 거의 소개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이 편역서의 의의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63년 발표한 이해창 자신의 논문 “신문이론으로서의 「표시(表示)」와 「전달(傳達)」”이 개정증보판부터 수록되어 있는 점이다. 이 글은 푸블리찌스틱의 기본 개념인 표시(Aussage)와 미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달(communication)로 번역해서 두 개념을 비교하고, 표시의 본질을 고찰한 논문이다. 이것은 그의 연구가 독일 공시학의 번역소개에서 나아가 스스로 푸블리찌스틱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는 단계로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해창은 1978년 『신문학개론 강의(상)』를 저술했다. 이 책은 독일 공시학을 정리한 언론학 개설서이다. 책의 분량은 130쪽으로 적은 편이지만 그가 이해한 공시학을 바탕으로 한 언론학으로서의 신문학의 본질과 주요 개념 및 관련 문제들을 개관한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론과 비교되는 독일 푸블리찌스틱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설서로 평가된다. 전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 신문학 연구의 대상에서 시작하여 신문과 신문지의 차이, 표시개념의 본질 등을 살펴보고, 2장 신문본질론, 3장 신문보도론, 4장 뉴스와 편집제작, 5장 통신사론(通信社論), 6장 신문사론(新聞史論), 7장 신문과 사진, 8장 전파매체와 정보, 9장 신문과 광고, 10장 신문의 자유와 윤리, 11장 신문만화론, 12장 균중 · 공중 · 대중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의 신문학 연구대상이 신문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오늘날 언론학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포함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한국에서 독일의 언론학이 어떻게 도입되고 연구되었는가? 먼저 김현준 박사가 일제강점기인 1928년 독일에서 조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신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신문과 잡지에 독일 신문학을 소개하는 글을 몇 편 발표했다(서정우, 1977). 또한 박유봉이 1965년 저술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독일 신문학의 일부 개념을 소개했다. 그러나 독일 언론학의 본격적인 도입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1980년대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초기 성과로 박유봉이 1970년 발표한 “신문학의 「푸브리찌스틱」 학제로의 확대”와 “독일에 있어서의 홍보학(Pulizistikwissenschaft)의 성립과 발전”(1974)을 들 수 있다. 이어 말레츠케(Maletzke, 1963)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이 1976년 번역되고, 도비파트의 『신문원론』 증보판(1967)이 번역된 것이 1982년이였다. 그후 김경근과 방정배가 독일 공시학을 바탕으로 한 연구서 『언론현상과 언론정책』(1984) 및 『자주적 말길 이론』(1985)을 각각 저술했다. 또한 이정춘이 독일 공시학을 『커뮤니케이션 사회학』(1984)과 『커뮤니케이션과학』(1988)으로 소개했고, 김학천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독일의 사회문화체계 변동과 公示學(Pulizistik) 이론의 전개과정”(1987)을 발표했다. 이처럼 다른 학자들에 의한 독일 언론학의 본격적인 소개와 연구는 1970년에 시작되었고,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은 그보다 더 뒤의 일이었다. 따라서 이해창은 우리나라에서 독일 공시학을 소개하고 연구한 선구적인 학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이해창의 언론사 연구

1) 이해창의 언론사 연구의 관점,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이해창의 언론사 연구관점

이해창의 언론사 연구 업적을 고찰하기 앞서 먼저 그의 언론사 연구의 관점과 연구대상 및 접근방법 또는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해창은 독일신문학의 영향을 받은 일본에서 신문학을 배웠고, 나이 40이 넘어 독일에 가서 독일언론학인 공시학을 공부했다. 이해창의 이런 학문적 배경은 공시학의 소개와 함께 신문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이끌었던 것 같다. 전통적으로 독일 언론학은 이론과 함께 역사연구가 활발했다. 독일에서 연구한 일본학자 오노 히데오 역시 신문이론과 함께 신문의 역사를 저술한 바 있다. 이해창이 편역한 『독일신문학 연구』에서 신문의 역사를 다룬 글이 많이 포함된 것도 바로 그런 연구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해창이 독일 신문학계 현황을 설명하면서 데스터(Karl d'Ester)를 인용했는데, 그 가운데 “신문학연구는 신문의 존재의의와 그 사명을 연구하는 데 제1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이해창, 1973, 33쪽)라는 내용이 있다. 그가 한국의 신문사연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국 신문 사명관(使命觀)의 변천”(1966)을 살펴본 것은 이러한 독일언론학의 학문적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해창은 독일 공시학을 공부하면서 역사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의 언론사를 연구한 것이다.

이해창이 언론의 역사를 연구한 기본입장과 연구관점은 무엇인가? 그는 신문사연구를 “한국에 있어서의 근대 신문의 발생과 그 발전과정,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근대의 정신문화사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이해창, 1983, 7쪽)하는 것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연구관점을 “한국신문사 전반에 걸쳐 상호관련의 입장에서 고찰”했다고 밝혔다(이해창, 1983, 7쪽). 신문현상만이 아니라 사회현상과의 상호관련을 고찰하는 입장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이해창의 한국언론사를 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개화기 이후 우리나라에 출현한 신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평가한 것이다. 그는 “한국의 역대신문이 애국애족하는 민족주의 정신으로 일관해서 발전되어 내려온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 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이해창, 1983, 120쪽).

한국신문의 사명관이 무지몽매하였던 봉건사회에서 벗어나려고 시야를 널리 세계에 돌리고 開國進取하여 국민을 계발하기 위한 신문발간에서 시작된 신문의 임무는 자주독립과 민권사상의 배양, 외세침입에 항쟁, 지식의 보급, 민족정신의 양양, 그리고 그 시대와 결부된 국가와 국민이 당면한 고난을 타개하는 것이 제1목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은 언론사 연구 1세대 속하는 최준과 임근수의 연구관점과 비슷하다(최준, 1970, 1976; 임근수, 1984 참조). 언론사 연구 1세대의 대표적인 세 학자 모두 개화기와 일제시기 신문의 역할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술하고 평가한 것이다. 당시 신문의 한계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해창이 한국 신문의 역사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경향은 광복이후 5·16 군사정부의 언론정책과 제5공화국의 언론기본법 제정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데에도 나타나고 있다. 당시의 정책과 법령을 기술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나 비판은 하지 않는 서술방식을 택한 것이다. 『한국신문사연구』의 1971년 초판발행이 유신 직전이었고, 1983년 개정증보판 간행 역시 제5공화국 시기라는 시기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이해창의 언론사 연구대상, 시기구분 및 연구방법

이해창이 언론학의 의미로 신문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역사연구에도 신문사(新聞史)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언론과 언론사(言論史)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연구대상은 신문(지)만이 아니라 전파 미디어, 광고, 만화, 영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가 신문사로 부른 언론사의 연구 대상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이해창이 실제 연구를 한 대상은 그만큼 그가 더 관심을 가졌던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가 관심을 갖고 연구한 대상과 주제

를 그의 논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신문: 사명관의 변천, 제약의 변천, 해외 국문신문의 변천, 초기 기독교신문, 구한국시대의
일인 경영신문, 8·15 직후의 언론, 구한국시대 친일지(親日紙)와 민족지(民族紙)와의
갈등
시사만화: 신문, 잡지의 시사만화 사상사
잡지: 구한말 잡지, 어린이 잡지의 역사

이해창은 그의 『한국신문사연구』(1983) 개정증보판 서문에서 “언론사 연구에서 잡지사 분야는 신문사분야와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언론사분야에 있어서는 잡지사 분야가 무시되어지고 등한시되어지는 폐가 없지 않았다. 오랜 시일을 두고 잡지는 신문이 미급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상호관계에 있어서 서로 단점을 보충하는 협조관계에서 역사적으로 있어왔다는 것은 언론사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이해창, 1983 8쪽)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해창이 신문사로 부른 연구대상은 신문매체만이 아닌 오늘날 언론학에서 말하는 연구대상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를 언론사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해창은 한국언론사를 어떻게 시기 구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해창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한성순보』가 출현한 1883년부터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될 때까지를 근대신문사의 영역으로 보고 서술한 바 있다(이해창, 1977). 일제강점기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를 다시 구분하지 않았으나 관련 논문의 구성을 보면 일제시기와 8·15 이후로 나눈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면 이해창의 한국언론사 시기 구분은 개화기를 근대언론사로 보았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시기를 현대언론사 영역으로 간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에 일제강점기를 현대로 구분한 사례는 일반사의 다른 연구에서도 적지 않다.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이들에게 그 시기가 현대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해창의 접근방법 내지 연구방법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의 언론사 연구의 접근방법은 그의 저서 부제(副題)로 밝힌 바와 같이 철저하게 자료 중심이다. “가능한 한 실증적인 연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설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된 것이다. 이해창 스스로 “신문사 연구는 광범한 범위에 걸친 자료와 문헌의 도움을 갖고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엮은 신문사 연구의 저술은 신문사 연구에 있어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이해창, 序, 1971, 7쪽). 이처럼 그의 언론사 연구방법은 철저하게 사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역사적 문헌연구방법이었다.

이해창이 한국 언론사 연구를 시작한 1960년대에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던 주제들 특히 해외에서 발행한 국문신문 연구를 위해 직접 미국, 일본 등 현지에 가서 자료를 수집한 그의 학문적 열정과 자세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구내용이 주로 자료 중심으로 자료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면서, 이해창 자신은 신문현상과 사회현상

과의 상호관련을 고찰한다고 밝혔지만, 언론현상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고, 분석하여 그 현상의 역사적 의미를 도출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경향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향은 초창기 연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관련되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열악한 초기 연구 환경에서 불가피한 양상인 셈이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초기 언론사 연구의 선구적인 업적으로서 그 연구사적 의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해창의 언론사 주요 연구 내용

(1) 『한국신문사연구』

이해창은 1966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언론사 관련 논문을 모아 1971년 『한국신문사연구』를 펴내고, 1983년 개정증보판을 내었다. 개정판의 목차를 살펴보면 제1편 한국 신문사 명관의 변천, 제2편 한국 신문제약의 변천, 3편 해외 국문지의 변천, 4편 한국초기 기독교 신문에 대한 고찰, 5편 구한말잡지의 태동기, 6편 8·15 해방 직후의 언론, 7편 구한국시대의 일인(日人) 경영신문, 8편 구한국시대의 친일지와 민족지와의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으로 언론 관련 주요 법령을 수록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해창의 언론사 연구는 철저하게 자료 중심이다. 직접 현지에 가서 구한 자료들을 소개한 것이 많아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적지 않다.

특히 제3편 해외 국문지의 변천은 1983년 개정증보판의 경우 117쪽의 분량이다. 논문은 미주(美洲)·하와이 방면, 해삼위(海蔘威)·송왕영(松王榮)¹⁶⁾ 방면, 상해(上海) 방면, 만주·천진·북경 방면으로 나누어 해외에서 발행한 우리말 신문의 발간배경, 주요 신문의 창간사 및 그밖에 특징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 글은 해외에서 발행된 주요 국문신문의 전반적인 발행 상황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 독창적인 노작으로 평가된다. 제7편 구한국시대의 일인 경영신문 역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 연구는 조선 최초의 일본어 신문이 출현한 부산에서 시작하여 인천, 평양, 원산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일본인 경영신문의 창간배경과 신문의 특성을 설명했다. 이 논문 역시 많은 사진자료를 곁들이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발행한 신문들도 다루어 그의 연구 이전에 거의 연구된 적이 없는 개화기 일본인이 경영한 신문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물론 그의 연구는 자료를 소개하는 형식이어서 논문구성, 설명 및 분석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그 자신도 자료부족으로 “이 고찰도 미미한 상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한계를 밝히고 있다(이해창, 1983, 230쪽). 그럼에도 그의 연구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관련 사료와 기존 연구가 거의 없던 환경에서 수행된 언론사 연구의 선구적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6) 海蔘威: 블라디보스톡, 松王榮: 러시아 니콜리스크의 한자 이름. 현재는 우수리스크로 불린다.

(2) 『한국시사만화사』

이해창의 언론사 연구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주제는 시사만화사 연구이다. 그는 1976년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의 풍자만화를 다룬 50쪽의 작은 책 『한국풍자만화의 사상』을 펴내고, 이를 『신문과 방송』 1976년 10월호부터 1977년 2월호까지 5회로 나누어 연재한 바 있다. 그 후 자유당 정권 말기까지의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해 1982년 『한국시사만화사』를 간행하였다. 이 책은 한국 언론학계에서 학문적으로 거의 관심 갖지 않는 시사만화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고 언론학계 최초로 한국 시사만화 역사를 개관한 저술로 평가된다. 이후 시사만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만화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학계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한국언론재단, 2000).

이 책은 제1장 서(序)에 이어 2장 개화기의 풍자만화, 3장 두 가지의 선구적 만화, 4장 대만민보의 풍자만화, 5장 해외민족지의 만화, 6장 신문만화의 발흥기, 7장 신문연재만화, 8장 해학의 만화화(漫畫化)와 만문만화(漫文漫畫), 9장 인물만화와 세모만화, 10장 잡지와 만화, 11장 아동잡지와 아동만화, 12장 8·15 해방 후의 만화, 13장 만화지(지)[漫畫誌(紙)]의 변천, 14장 시사회고만화, 15장 만화와 작가, 16장 만화표기의 변천, 17장 결(結)로 구성되었다. 이 책 역시 수많은 관련 만화를 사진으로 수록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해창은 현실성을 가진 만화가 그 시대 사회생활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 우수한 만화의 역할을 “한층 더 사상(事象)에 대한 관심을 돋구게 하고, 그 가치관을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이해창, 1982, 7쪽). 결론에서 그는 한국 시사만화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이해창, 1982, 267쪽).

시사만화라는 것은 언제나 당대에 야기된 현실적인 事象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만화의 변천은 때로는 역사의 변천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 한국신문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신문·잡지의 성장은 만화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고 만화의 발전은 신문·잡지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에서 수용자 대중의 친근한 반려가 되어 왔던 것이다.

그는 책의 후기에서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정치희평(政治戲評), 사회희평 그리고 극화(劇畵)에 대한 발전상은 후일에 그 보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해창, 1982, 269쪽). 책을 낸 이후에도 신문만화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¹⁷⁾

17) 이해창이 신문의 시사만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데는 일제강점기 『매일신보』에 함께 근무한 웅초(熊超) 김규택(金奎澤) 화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규택은 당시에 이미 뛰어난 만화가로 평가받은 인물이었는데, 그도 권투를 잘해 권투를 좋아하는 이해창의 권투상대로 가까웠다고 한다(조용만, 1976, 4쪽). 이해창은 『한국시사만화사』 15장 만화와 작가에서 천리구 김동성과 웅초 김규택을 독립된 항목으로 설명했다.

6. 이해창의 한국 언론학 연구사에서의 의의

이상에서 우범 이해창의 언론학과 언론사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학의 초창기 역사를 만들어간 언론학 1세대들의 연구업적은 무엇이고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는가? 이해창의 연구사적 의미는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는 1950년대 말에서 1960~1970년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과 주요 연구업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 5>에서 보듯 한국 언론학 초기 대표적인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은 국내에서 공부한 임근수를 제외하면 모두 일본에서 공부했고, 이해창과 박유봉은 독일에서도 공부한 인물이다. 그런데 저서를 중심으로 연구업적을 보면 광복산과 박유봉은 언론학개설서를 주로 저술했다. 1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최준, 임근수, 이해창은 언론사를 연구하면서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 김규환은 일본에서 공부했으나, 미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론에 관심이 많았다. 이러한 학문적 관심을 바탕으로 그는 1960년대 언론학계에 미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연구를 적극 도입하여 우리나라 언론학의 성격을 미국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지향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양승목, 2005).¹⁸⁾

이와 같은 한국 언론학 초기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업적과 비교할 때, 자신의 학문적

〈표 5〉 한국 언론학 초기 주요 학자의 학문적 배경과 연구업적

이름	출신학교	주요 연구업적(저서)
광복산	일본조치(上智)대학 전문학부 신문학과	신문학개론(1955) 언론학개론(편저, 1971)
최준	일본메이지(明治)대학 신문고등연구원 연수	한국신문사(1960, 1970, 1990) 방송론(1965) 한국신문사논고(1976)
임근수	연희전문 연구과(사학) 중앙대 박사(독일신문사전공)	신문발달사(1967) 언론과 역사(1984)
이해창	일본 조치대학전문학부 신문학과 독일 뮌스터대 신문연구소 연구	독일신문학(1962, 1973, 1979) 한국신문사연구(1971, 1983) 신문학개론강의(상)(1978) 한국시사만화사(1982)
박유봉	일본 조치대학전문학부 신문학과 독일 뮌헨대 철학박사(신문학)	매스 커뮤니케이션(1965)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원론(1985)
김규환	일본 도쿄대학 사회학박사(언론정책사)	한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1973)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편, 1977) 일제의 대한 언론선전정책(1978)

18) 그런 점에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한 『일제의 대한 언론선전정책』(1978)은 그의 연구관심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언론사 연구이다. 1959년 도쿄대(東京大)에서 받은 그의 사회학박사 학위논문 제목은 “殖民地朝鮮に於ける言論および言論政策史”이다.

배경에 따라 독일 공시학(푸블리찌스틱학)을 소개하고, 한국언론사를 연구한 이해창은 미국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와는 다른 것으로 양승목이 말하는 전통적인 신문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해창의 연구는 일본의 신문학과 독일 푸블리찌스틱학을 바탕으로 한 언론학과 언론사 연구였다. 그런 학문적 입장을 가진 이해창은 초기의 대표적인 다른 학자들 못지않은 연구업적을 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차배근이 그를 한국 언론학 4비조의 한 사람으로 평가한 데는 이러한 연구업적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그는 언론학계에서 기존 연구가 드문 주제들을 연구한 선구적 업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언론학에서 이해창이 갖는 연구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는 1947년 저널리즘 전문 연구잡지 『신문평론』을 창간해 6호까지 당시로서는 가장 오래 발행하여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고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는 1960년 언론관련 학과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두 번째로 오래된 이화여자대학교 신문학과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한국에서 언론학 교육의 초기 제도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독일 푸블리찌스틱학(공시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독일 공시학을 바탕으로 한 언론학 개설서를 저술하였다. 넷째, 그는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해외국문지의 변천, 구한국시대 친일지와 민족지와의 갈등 등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여러 주제의 한국 언론사를 연구하여 선구적인 업적을 내었다. 다섯째, 그는 한국 언론학계에서 처음으로 한국 시사만화의 역사를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관했다.

월급 타면 책을 사고, 연구비 타면 자료 수집을 위한 외국여행을 하던 고집불통의 학자로 기억되는 이해창(장명수, 1990, 4쪽), 그는 정년퇴직 후에도 연구를 계속해 자신의 책의 개정 증보판을 내며 평생을 연구한 한국 언론학의 대표적인 1세대 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朝鮮總督府 警務局 (1941). 『朝鮮出版警察概要』 1940년판. 정진석 편 (2007). 『朝鮮出版警察 概要: 1937. 01 ~ 1940. 12』.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 곽복산 (1955). 『신문학개론』. 서울신문학원 출판부.
- 곽복산 (1971). 신문학의 전개와 한국의 과제. 곽복산 편. 『언론학개론』(30~47쪽). 일조각.
- 곽복산 편 (1971). 『언론학개론』. 일조각.
- 관훈클럽심영연구기금 (1992). 『저널리즘 · 新聞評論』 영인본. 한국언론전문지총서 2.
- 김경근 (1984). 『언론현상과 언론정책』. 법문사.
- 김규환 (1973). 『한국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민중서관.

- 김규환 (1978). 『일제의 대한 언론선전정책』. 서울: 이우출판사.
- 김규환 편 (1977). 『한국 커뮤니케이션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동철 (1990). 이화여자대학교에 있어서의 언론학교육의 회고와 전망.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창설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1-1 ~ 1-25.
- 김영희 (2009).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1880 ~ 1980』.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학천 (1987). 독일의 사회문화체계 변동과 公示學 (Pulizistik) 이론의 전개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용규 (2001). 일제 말기(1937 ~ 1945)의 언론통제정책과 언론구조변동. 『한국언론학보』, 46권 1호, 194 ~ 228.
- 박용규 (2004). 안재홍의 언론활동과 언론관.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6호, 210 ~ 235.
- 박용규 (2006). 일제하 지방신문의 현실과 역할.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35 ~ 58.
- 박용규 (2007). 미군정기 언론인 단체들의 특성과 활동.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135 ~ 162.
- 박유봉 (1965). 『매스 커뮤니케이션』. 일조각.
- 박유봉 (1970). 신문학의 「푸브리찌스틱」 학제로의 확대. 『신문학보』, 3호, 5 ~ 17.
- 박유봉 (1974). 독일에 있어서의 홍보학(Pulizistikwissenschaft)의 성립과 발전. 『신문학보』, 3호, 5 ~ 29.
- 박유봉 (1977). 신문학과의 창설과 발전. 차배근 외. 『한국신문학 50년사』(205 ~ 222쪽). 회관 임근수 박사 화갑기념 논총. 정음사.
- 박유봉 (1985). 『현대 매스커뮤니케이션 원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방정배 (1985). 『자주적 말길 이론』. 나남.
- 서정우 (1977). 한국 최초의 신문학 박사 김현준. 차배근 외. 『한국신문학 50년사』(109 ~ 113쪽). 회관 임근수 박사 화갑기념 논총. 정음사.
- 안광식 (1977). 이해창교수와 그의 신문학 연구. 차배근 외. 『한국신문학 50년사』(133 ~ 140쪽). 회관 임근수 박사 화갑기념 논총. 정음사.
- 안광식 (1993). 우범 이해창. 『한국언론인물사화 8 · 15후편(하)』(208 ~ 215쪽). 대한언론인회.
- 안덕근 (1946). 조선신문론. 『신세대』, 3호, 642 ~ 646.
- 양승목 (2005). 초창기 한국 언론학의 제도화와 정체성 변화: 南玟 金圭煥 小考. 『커뮤니케이션이론』, 창간호, 1 ~ 34. 한국언론학회.
- 이길용 (1948). 체육기자 인상기. 『신문평론』, 3호, 51 ~ 55.
- 이정춘 (1984). 『커뮤니케이션 사회학』. 범우사.
- 이정춘 (1988). 『커뮤니케이션과학』. 나남.
- 이해창교수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1976). 『저널리즘논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임근수 (1967). 『신문발달사』. 서울: 정음사.
- 임근수 (1973). 한국신문학사 서설. 『신문학보』, 6호, 8 ~ 21. 한국신문학회.
- 임근수 (1984). 『언론과 역사』. 서울: 정음사.
- 장명수 (1990). 월급 타던 책 사시던 고집불통 학자. 『시니어저널』, 1990년 3호, 4 ~ 5.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동창회.
- 정진석 (1995). 『조선신문학원의 기자양성과 언론학연구』.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언론학논선 9.

- 정진석 (2001). 『언론과 한국 현대사』.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진석 (2003). 광복 후 6·25 전쟁까지의 언론. 대한언론학회 편찬위원회 편. 『돌아오지 못한 언론인들: 6·25 전쟁 언론수난사』(180~288쪽). 대한언론학회.
- 정진석 (2005).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진석 (2008). 숨어 있던 <『新聞評論』> 제5호. 『관훈저널』, 106호(봄호), 138~143.
- 조용만 (1976). 序. 이해창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편 (1976). 『저널리즘논고』(3~7쪽).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용만 (1977). 나의 기자 시절. 『신문과 방송』, 6월호, 87~93.
- 차배근 (1990). 晞觀 林根洙 박사의 언론사 연구입장. 『고 희관 임근수 박사추모 언론사 연구발표회 논문집』(1~24쪽).
- 최 준 (1960). 『한국신문사』(1970 증정판, 1990 新輔版). 일조각.
- 최 준 (1965). 『방송론: 이론과 실제』. 일조각.
- 최 준 (1976). 『한국신문사논고』. 일조각.
- 한국신문학회가 창립 발족하기까지. 『신문학보』, 1호, 71~72.
- 한국언론재단 (2000). 『한국 시사 만화』.
- 宮田節子 (1985).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이영남 역 (1997). 『조선민중과 황민화 정책』. 일조각.
- 小野秀雄 (1922). 『日本新聞發達史』. 大阪: 大阪毎日新聞社.
- 小野秀雄 (1932). 『圖解新聞發生史』. 東京: 新聞學研究會.
- 小野秀雄 (1934). 『現代新聞論』. 東京: 時潮社.
- 小野秀雄 (1947). 『新聞原論』. 東京: 東京堂.
- 小野秀雄 (1948). 『日本新聞史』. 東京: 良書普及會.
- 小野秀雄 (1955). 『新聞の歴史: 瓦版から輪轉時代まで』. 東京: 同文館.
- 小野秀雄 (1971). 『新聞研究 五十年』. 東京: 毎日新聞社.

Dovifat, Emil (1967). *Zeitungslehre I Band*. 박유봉 · 정대수 역 (1982). 『신문원론』. 전예원.

Maletzke, V. Gerhart (1963). *Psychologie der Massen-Kommunikation*. 박유봉 · 김진홍 공역 (1976). 『매스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범문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이해창 교수 논저 목록

저서

- 이해창 (1958). 『종합 초급독일어: 기초문법 · 작문』. 수험사.
- 이해창 (1962). 『獨逸新聞學研究』. 개정증보판(1973), 개정3판(1979). 이대출판부.
- 이해창 (1971). 『韓國新聞史研究』. 개정증보판(1983). 성문각.
- 이해창 (1976). 『한국풍자만화의 사상』. 새글사.
- 이해창 (1978). 『新聞學概論講義 上』. 새글사.

- 이해창 (1980). 『美洲에서 발행된 僑胞新聞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 이해창 (1981). 『스포츠와 저널리즘』. 새글사.
- 이해창 (1982). 『韓國時事漫畫史』. 일지사.
- 이해창 (1984). 『신문학개론강의 上』(1978년판의 재판). 성문각.
- 이해창 · 송유재 (1979). 『어린이 雜誌(漫畫包含)에 대한 효과분석과 대책』. 문교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언론학, 언론사 관련 논문, 기고문

- 이해창 (1948). 세계 신문학자 편모. 김사림. 『신문기자수첩』. 서울: 모던출판사. 竹8.
- 이해창 (1948). 퍼-쇼넬 · 쩌-날리즘의 시비. 『신문평론』. 5호.
- 이해창 (1962). 지방신문의 성격: 전국적 신문과의 차이. 『신사조』, 1권 11호, 84~88. 신사조사.
- 이해창 (1963). 신문광고의 효과와 윤리. 『신사조』, 2권 12호, 170~176.
- 이해창 (1966). 한국신문 사명관의 변천.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6집, 263~302.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이해창 (1969). 최근 독일방송의 현황: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문화』, 2권 3호(4월호), 21~24. 한국방송회관.
- 이해창 (1969). 악셀, 쉬프링거. 『세대』, 7권 4호, 292~301. 세대사.
- 이해창 (1970). 한국 신문 계약의 변천.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6집(81~117쪽).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이해창 (1970). 해외 국문지의 변천: 1904년에서 1945년까지 발행된 신문을 중심으로. 『신동아』, 74호(10월호), 456~472.
- 이해창 (1970). 해외 국문지의 변천: 1940년에서 1945년까지 발행된 신문을 중심으로. 『신동아』, 76호(12월호), 464~473.
- 이해창 (1971). 해외국문지의 변천 (하): 1940년에서 1945년까지 발행된 신문을 중심으로. 『신동아』, 79호(3월호), 456~474.
- 이해창 (1971). 한국 초기 기독교신문에 대한 고찰, 그 사명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18집(219~242쪽).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뛰어스테나오 · 테오 (이해창 역) (1974). 영화표시와 형태와 公示의 작용. 『영화』, 2권 12호(12월호), 39~44. 영화진흥공사.
- 하게만, 발터 (이해창 역) (1975). 영화공중. 『영화』, 3권 1호(1·2월호), 38~44.
- 이해창 역 (1975). 인도영화의 오늘. 『영화』, 3권 4호(5월호), 70~75.
- 이해창 (1976). 풍자만화의 대일항쟁: 광복 전까지의 만평 속에 나타난 항일의식. 『세대』, 157(8월호), 138~149.
- 이해창 (1976). 한국풍자만화의 사상: 개화기부터 8·15 해방까지. 『신문평론』, 71호(10월호), 70~75.
- 이해창 (1976). 한국풍자만화의 사상: 개화기부터 8·15 해방까지. 『신문과방송』, 72호(11월호), 58~63.
- 이해창 (1976). 한국풍자만화의 사상: 개화기부터 8·15 해방까지. 『신문과방송』, 73호(12월호), 46~53.
- 이해창 (1977). 한국풍자만화의 사상: 개화기부터 8·15 해방까지. 『신문과방송』, 74호(1월호), 62~67.

- 이해창 (1977). 한국풍자만화의 사상: 개화기부터 8·15 해방까지. 『신문과방송』, 75호(2월호), 72~76.
- 이해창 (1977). 1. 언론기관의 활동.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5~104.
- 이해창·송유재 (1980). 어린이 잡지에 대한 효과분석과 대책(상). 『신문과방송』, 115호(6월호), 60~74.
- 이해창·송유재 (1980). 어린이 잡지에 대한 효과분석과 대책(중). 『신문과방송』, 116호(7월호), 44~61.
- 이해창·송유재 (1980). 어린이 잡지에 대한 효과분석과 대책(하). 『신문과방송』, 117호(8월호), 68~78.

최초 투고일 2009년 6월 12일

게재 확정일 2009년 7월 18일

논문 수정일 2009년 7월 28일

The Research on Mass Communication and Its History by Lee Hae-Chang

Young-Hee Kim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earches on mass communication and its history by Lee Hae-Chang(李海暢), one of the representative scholars of first generation in the field of Korea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KJCS), and to review the meaning of his studies in the research history of KJCS and his role as well. The review result for Lee's studies with respect to research histor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e published the *Simmunpyoungwon*(新聞評論), the journalism research magazine from 1947 to 1949, which helped raise the understanding of journalism and improve its popularization. Second, he took an initiative in establishing the department of journalism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1960, which helped improve an early institutionalization of KJCS education. Third, he was the first one who introduced and studied systematically *Pulizistikwissenschaft* of Germany in Korea. Fourth, he studied the pioneering themes of Korean mass communication history. Fifth, he studied the Korean cartoon history for the first time in KJCS circles.

Key words : Lee Hae-Chang, first generation of Korea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research history of Korea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Pulizistikwissenschaft*, Japanese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Mass Communication Research, Korean Mass Communication History Research